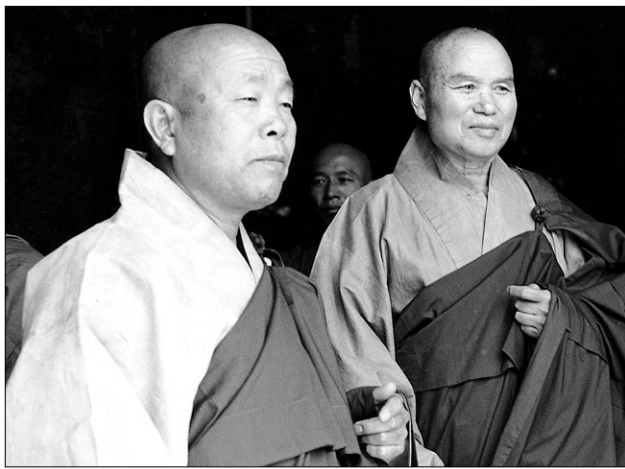


“바보 소리 들어야 공부할 수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자서전 ‘누구 없는가’ 출간

성철 스님이 제자인 법전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학인이 스승에게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 불법의 대의를 물었던 말이다. 그때 스승이 ‘죽은 사람 술상 위에 술이 석 잔’이라고 답했는데 나는 어찌 대답하겠노?” “제가 그때 있었으면 곡을 세 번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됐다. 어떤 것을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겠구나.”



스승인 故 성철 스님(오른쪽)과 함께 한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스물넷에 성철 스님을 만나 태산처럼 믿으며 시봉하고 공부한 지 10년만에 인가를 받는 장면이다. 며칠 간의 계속된 공안(公案) 점검에도 막힘 없이 척척 대답한 법전 스님은 마침내 스승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법전 스님의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을 기록한 자서전 <누구 없는가>(은행나무)에서 스님은 과거사 정전앞에서 인가 받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꼭 막혀 있던 자리가 터져버린 듯했으니 무릎 꿇고 대답이 척척 나왔다. 물구멍이, 불구멍이 떨어진다 해도 겁날 게 없었다. 노장(성철 스님)이 1천7백 공안을 다 물어도 막힘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솟았다.” <누구 없는가>에서 처음으로 성철 스님으로부터 점검 및 인가 받는 과정을 공개한 법전 스

님은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목숨을 건 도굴수행 끝에 체한 득도의 과정에서 얻은 오도송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추니(鏡鏡互相照)/ 비치는 것과 그림자가 둘 다 없더라(照無於影像)/ 이것이 또한 무슨 물건이나(此是亦何物)/ 청산이 백운 속이더라(靑山白雲裏).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든 정진이었다. 그런 만큼 온몸으로 부딪쳐 실감한 득력(得力)은 대단한 것이었다. 무한한 힘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꼈다. 천하가 모두 내 손에 들어있는 듯 자신감이 솟았다.”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한 생을 참선정진으로 일관한 법전 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 1938년 백양사 청류암으로 입산해 1941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 스님을 계사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했다. 1949년 성철·정담·향곡·지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동참해 수행의 전기를 맞았고,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 스님을 은법사로 도림(道林)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56년 대승사 묘적암에서 홀로 정진해 득력한 뒤, 서른셋의 나이에 파계사 정전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후 태백산에 들어가 10여 년간 홀로 보입(保岳)했으며, 1969년부터 15년간 수도암에서 퇴락한 가람을 중수하고 선원을 열었다. 1996년 해인총림 방장, 2000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2002년 제11대 종정, 2007년 제12대 종정으로 추대된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 주석하며 후학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진리를 위해 일체를 희생하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한 평생 오직하게 실천해 온 법전 스님은 스승이 던진 “누구 없는가?”하는 화두와 같이 “한국불교를 청정하게 이끌 사람, 그 누구 없는가?”하는 뜻을 담아 펴낸 <누구 없는가>에서 철저한 수행정진을 거듭 당부한다.

“수행자는 바보 소리, 등신 소리 들어야 바로 공부할 수 있다.”

누구 없는가 | 법전 지음 | 김영사 | 1만 4000원 | 김성우 기자

‘진리의 길’ 스승들의 따끔한 가르침

원순스님, 구도자의 수행 지침서 ‘치문’ 완역

<치문경훈(智問警訓)>은 사미니 스님들이 강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으로, “먹물 옷을 입은 구도자(緇)가 울곧은 수행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들어 가도록(門) 도와주는 스승들의 따끔한 가르침(警訓)”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치문경훈>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불제자라면 누구나 생활속에서 가까이 해야 할 절절한 지침서다.



원순 스님.

난해한 한자가 많고 경전과 어록, 사서삼경 등의 내용이 어우러져 어렵기로 소문난 이 책을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치문>(법공양 제이란 이름으로 펴냈다.

<치문> 3권 완역을 기념해 12월 4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원순 스님은 “<치문>은 도(道)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고,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라며 “수행의 완성을 통해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닫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순 스님이 풀어 쓴 <치문>은 제1권 ‘스님들이 가야 할 길’, 제2권 ‘수행은 중생의 복밭’, 제3권 ‘모두 함께 깨

달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에서는 스승들의 따끔한 훈계와 면학에 대한 강조, 위산영우 선사와 ‘위산경학’을 비롯한 후학들을 위해 남긴 가르침(遺訓)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2권은 마음에 늘 새겨두고 살아야 할 글들을 모은 잠경(箴銘), 공부에 관한 편지(書牘)를 모은 서장(書牘), 사찰 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모은 기문(記文), 훌륭한 책의 서문을 모아 놓은 서문(序文), 이산해연 선사와 산곡 거사의 발원문이 들어있는 원문(願文)으로 구성돼 있다. 제3권은 선종에 관한 글들을 모은 선문(禪文), 선사들의 가르침을 모은 시종(示衆), 백시랑과 사마은공의 계승을 모은 계찬(계傳), 황제들이 불법을 지킨다는 내용의 호법(護法), 인과응보를 살펴해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내용인 전기(傳記)와 계고(稽考)가 들어 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순 스님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정진한 후, <禪스승의 편지> <선요> <한글 원각경> <육조단경> <몽산법어> <선가귀감> <큰 마음을 일으키는 글> 등 20여권의 경전과 선어록을 우리말로 옮겼다. 2003년 행원문화상(역경부)을 수상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로서 1996년부터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 중이다.

치문 1,2,3 | 원순 풀어 쓴 | 법공양 | 각권 2만 원 | 김성우 기자

김교각 스님이 1200년만에 귀향한 까닭은?

한국 불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김지장 스님’



지난 11월 2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김교각 지장왕보살 불안법요식’이 봉행됐다. 이 행사가 불교계 내외의 주목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794년 김지장 스님이 입적한 지 12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국에서 조성된 김지장왕보살상이 신라 천년의 고도 서라벌에서 김지장 스님의 고향인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설가 정찬주씨가 김지장(696-794) 스님의 구도기를 그린 <소설 김지장>(한결출판사)을 펴냈다. 책에는 ‘김지장왕

보살상의 1200년만의 귀향에 모티브를 얻은 듯한 다음과 같은 예언도 보인다.

“1천년 하고도 200년, 1200년 후가 되겠지. 그때 고국의 사람들이 나를 부를 것이야.”

입적하기 전 김지장 스님이 제자인 정장 스님에게 한 예언처럼, 김지장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이 본격적으로 한국 불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소설 김지장>의 화자는 2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년의 차(茶) 연구원이다. 아내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주인공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불심이 깊던 아내를 위해 대원사를 찾았다가 고현 스님으로부터 중국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는다. 천이백년 전 신라의 김지장 스님이 남긴 예언의 실현과정을 지켜보

기 위해 떠나는 고현 스님과 김지장 보살에 매료되어 떠나는 주인공의 중국 여행기가 소설의 한 축을 이룬다. 아울러 주인공이 추적하는 김지장 보살의 구도기는 다른 한 축을 이뤄 현재와 과거의 두 축이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김지장 스님의 생애가 드라마틱하다. 이번 에 나온 <소설 김지장>은 2004년 발간된 소설 <달들의 개장판이다.

신라 왕자 출신 김교각 스님으로 잘 알려진 김지장 스님은 출가 후 당나라로 건너가 정진하다 99세로 입적한 후, 등신불로 모셔졌으며, 지장 보살의 화신으로 존경받았다.

소설 김지장 | 정찬주 지음 | 한결출판사 | 1만 원 | 김성우 기자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발표

불교 관련서 12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씨가 최근 발표한 올해의 우수교양도서 414종 가운데 불교관련 도서 12종이 선정됐다.

신청접수된 2940종 중 종교, 철학, 사회과학, 문학, 역사, 문화일반 등 12개 분야 가운데서 불교관련 도서는 종교와 문화부문에 각각 6종이 우수도서로 뽑혔다. 특히 불광출판사는 무려 3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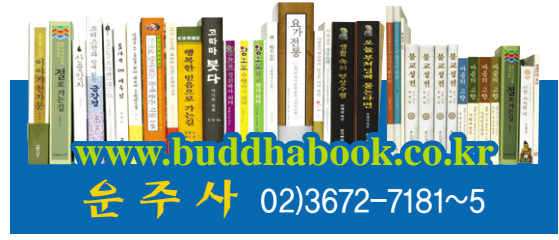
종교부문 총 16종의 도서 중 불교 관련서는 △선재야 선재야(문운정 지음, 클리어마인드) △김 위 의 절정(정지은 지음, 불광출판사) △불교학과 불교(권오민 지음, 민족사) △타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정지은 지음, 김인어 옮김, 호미) △현대예술 속의 불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지음, 예문서원) △정소년을 위한 세계 종교여행(김나미 지음, 사계절출판사)이다.

문학부문 총 8종의 선정도서 가운데 불교 관련서는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곽은구 지음, 불광출판사) △지리산 스님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천진 지음, 불광출판사)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백팔번뇌(홍성란 지음, 조계종출판사) △삼그릇 경건(이덕규 지음, 실천문학) △삼천 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정지은 지음, 마음의숲) △스님별 마음(문태준 지음, 마음의숲)이다.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법정	문학의 숲
2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3	사는 출가	보경	돌
4	인도에 갈 때는 손거리를 가져가세요	대연	이스트위드
5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6	일기일화	법정	문학의 숲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8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권영두	운주사
9	그냥 무조건야	대행	한마음선원
10	부처되는 공부	우학	돌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수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수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수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수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전등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유기농 황토삼백초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중앙대사전, 당분초, 영남제약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전등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색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움비 2500원 (50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사찰 건축의 얼굴 문

확! 바뀌드립니다

빗살문 사찰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